

오늘 제21대 국회의원·도의원 재보궐선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문 대통령, 어제 영상 국무회의

오전 6시~오후 6시 도내 230개 투표소서 진행
 투표소 입구서 발열체크·일회용 장갑끼고 투표
 2곳서 개표... 자정 전후 경합지역 당선자 '윤곽'

제주의선택

4·15총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21대 국회의원회와 제주자치도의
 회 의원 재·보궐 선거가 15일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 종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서귀포시 동홍동, 대천·
 중문·예래동, 대정읍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인수는 55만
 3198명으로 제주시갑 선거구 20만
 8660명, 제주시를 선거구 19만1862
 명, 서귀포시 선거구 15만2676명이
 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49만7555
 명보다 5만5643명 증가한 것이다.

재·보궐 선거인수는 대정읍 1만
 7587명, 대천·중문·예래동 2만 4120
 명, 동홍동 1만 8441명이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
 회의는 230개 투표소와 2개 개표소
 (제주시 한라체육관·서귀포올림픽기
 념국민생활관)를 설치했다.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
 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
 는 사람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의류용 장갑을
 착용한다.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투표소를 환기시킬 예정
 이다.

개표는 도내 2개 개표소에서 투표

함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시작된다.
 제주시는 지역구 개표 후 비례대
 표 개표가 이뤄지고, 서귀포시는 도
 의원 개표, 지역구 개표, 비례대표
 개표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표 관리에는 총 800여 명
 의 인력이 투입된다. 48.1cm의 비례
 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
 류한다.

도선관위는 개표참관인 등이 행동
 지침을 어기거나 질서유지에 협조하
 지 않아 개표사무 관계자 등의 안전
 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장을 명령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당선 확실' 지역구
 당선인은 투표일 자정을 전후해 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경합
 지를 제외한 지역구의 당선인 윤곽
 은 15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의
 경우 투표지 길이가 길어 수개표로
 진행되므로 개표 작업이 16일 오전
 8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바
 탕으로 한 의석 배분은 같은 날 오후
 5시 중앙선거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
 된다.

한편 지난 10~11일 이틀간 진행
 된 사전투표에는 제주지역 총 선거
 인수 55만4956명(재외선거인 포함)
 중 13만6822명이 참여해 투표율
 24.65%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지
 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첫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
 계자는 "15일 자정을 전후해 당선자
 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된
 다"며 "지난 20대 총선은 다음날 새
 벽 4시 59분에 개표가 모두 끝났다"
 고 말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개표기 점검 4·15 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개표기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국정 안정” vs “여당 견제”... 최후 승부

민주·통합당 각각 '심판론'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
 군소 정당들도 양당 독식 개혁론 등 견제성 메시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
 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무당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각 '야당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정 안정론'과 '국난
 극복론'을,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여당 견제론'과 '경제 살리기와 도
 민 통합'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달라
 고 호소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선대위
 성명에서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
 들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과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제
 주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
 했다. 이어 "자신의 유·불리만을 따
 지면서 탈당해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와 근거없는 가짜뉴스, 막
 말을 퍼트리며 품격없는 정치로 제
 주도민을 무시하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투표로 심판해달
 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호
 소문을 통해 "길게는 20년, 짧게는
 16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
 주지역을 대표해 왔다"면서 "당장 먹
 고 사는데 힘든 마당에 정치가 희망
 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실망만 안겨
 드렸던 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미래
 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담보 상태인 제주의 현안을 해
 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도민통합을
 이룰 책임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사실상 양당 대결 구도 속에 군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 독식 정치구조
 개혁론 등 견제 메시지를 담은 호소
 문을 내놓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
 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13일
 "이미 21대 국회 1·2당은 윤곽이 드
 러났고, 정의당이 의석 몇 석을 얻을
 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따라 21대 국회의 모습이 달라진다"
 면서 "반드시 정의당을 지켜달라"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이 통합해 출범한 민생당 제주도당
 은 "거대 기득권 양당이 지배했던 정
 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다시 힘을
 뭉쳤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민중당 제주도당은 14일 "위선적
 인 거대 양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
 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은지기자



문재인(사진) 대
 통령은 14일 "코
 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전과 다른 세상
 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역사
 에서 승자는 변화

를 기회로 만들어 온 자의 몫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달라"고 당
 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
 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위기 속
 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
 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
 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
 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구조와 삶의 방
 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
 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
 다.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개편할
 것"이라며 "분명 두려운 변화다. 그
 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
 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는 코로
 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추가경정예
 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
 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
 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
 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
 처에 주문했다. 청와대·부미한기자



새 아침! 젊은 신문!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송이화장품·화장품원료·송이천연염색·송이기능성제품

주식회사 송이산업
 Scoria Industry Co., Ltd.

박광열 대표이사
 010-2796-2422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 76-39
 T. 064-796-2422 F. 064-796-6839
 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1동, 한라일보사 1층 1호)
 T. 064-744-1744 F. 064-722-1744